

문학작품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 1950년대 '한강 인도교'를 중심으로 -

김 미 나**

■ 목 차 ■

I. 서론	IV. 비극적 사건 이후의 형상화
II. 시대적 비극의 형상화	V. 결론
III. 비극의 내적 형상화 방법	

[초록]

문학작품과 역사적 사건은 서로 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 속 세상은 현실을 반영함은 물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한 또 다른 현실상을 담아내고 있기 마련이다. 이 때 특정 역사적 사건이 문학작품에 반영되어 등장인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면면이 새롭게 드러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문학과 역사는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면서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본고는 특정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 작품들의 연계연구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작품들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일반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충격을 내밀한 기록으로 전했음은 물론 사건 이후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알려지지 않은 비극적 삶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 제시된 '한강 인도교' 뿐 아니라 또 다른 공간,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확대는 역사와 문학이라는 영역 확장 및 이후 장소성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한강, 문학, 역사, 장소성, 한강인도교 폭파사건

* 이 연구결과물은 2015학년도 한국연구재단(디지털인문학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2015S1A6A8050947)

**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ekagid@gmail.com.

I. 서론

문학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관련 연구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정의를 넘어 특정 공간이 함의하고 있는 문학적, 정서적 특수성은 물론 이를 발전시킨 콘텐츠화 방안 및 사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최근 연구된 문학과 역사의 장소성 연구는 교육, 융합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 재현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문학 공간 연구¹와 역사 공간 연구²라는 두 영역은 공간 연구라는 유사성을 함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발전방향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며 두 분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고는 장소성이 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문학, 역사의 융합 연구가 가능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문학작품과 역사적 사건은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 속 세상은 현실을 반영함은 물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한 또 다른 현실상을 담아 내고 있기 마련이다. 이 때 특정 역사적 사건이 문학작품에 반영되어 등장인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면면이 새롭게 드러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문학과 역사는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면서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호발전적인 관계는 학문적인 성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두 영역의 융합³은 주로 콘텐츠화, 교육 등으로 확장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학과 역사라는 영역 자체의 결합과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간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본고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장소성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최근 발표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노현(2015). “만인보 문학공간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공간 스토리텔링”; 변찬복(2015). “박태원 문학공간의 미학적 해석”; 김창호(2014). “지역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정여울(2012).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2. 역사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나열할 수는 없으나, 최근의 경향에 따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염복규(2015). “청계천 복개와 ‘1960년대적 공간’의 탄생”; 박창호·김흥기(2015). “도시복합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이해”; 김민옥(2012). “낙안읍성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3. 문학과 역사가 융합되어 진행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천득엽(2009). “광주 양림동의 근대도시공간적 의미”; 김수복(2011). “윤석중 문학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박영우(2013). “현대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장소성 연구에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주제들이 산재해 있다. 동일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특정 작가의 작품 연구⁴라든가, 동일한 장소를 배경으로 한 여러 문학작품을 묶어 연구하는 것 역시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학작품이 존재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와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한강 인도교’를 주요 공간으로 선정하였다. 시대적 배경은 한국전쟁 중 일어난 ‘한강 인도교 폭파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당시 ‘한강 인도교’에서는 1950년 6월 28일 오전 2시 30분에 북한군의 한강 이남 진격 저지를 위한 폭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또한 끊어져버린 다리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불가능해져 다양한 추가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거대한 사건의 규모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은 한국전쟁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상세한 피해 상황과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은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와 당시 상황들을 전하고 있다. 전쟁시기를 다룬 전쟁문학 연구와의 차이점은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 연구에 주목했다는 데 있다. 전쟁을 매개로 한 전쟁문학의 경우 이로 인한 인간의 삶, 또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본 연구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한 심리변화, 환경변화, 이로 인해 형성된 특정 장소의 이미지 형성에 주목했다는 점에 차이를 둘 수 있다.

본고는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 중 조지훈의 시 “絶望의 日記”, 김원일의 소설 “난민”, 서정주의 시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를 연구대상⁵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작품들은 사건이

4. 한 작가가 여러 작품을 통해 동일한 공간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장소가 역사적 공간이 아닌 개인적 체험의 공간일지라도 반복되어 배경으로 제시될 경우 중첩을 통한 새로운 의미가 창출, 정의할 수 있게 되거나 시대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전 연구를 통해 이문구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1960년대 한강을 중심으로 한 공간성을 연구한 바 있다. 각각의 작품 속 공간의 성격이 중첩되면서 1차적 의미들이 확대되어 결국 시대적 의미로 확장됨을 확인한 바 있다. (졸고(2016). “이문구 작품 속 한강의 공간성 연구”,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20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6.2.)

5. 조지훈(1959). “絶望(絶望)의 日記(일기)”, 『歴史 앞에서』, 新丘文化社.; 김원일(2009). “난민(難

일어나기 직전, 당시, 그 이후를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시공간을 특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강 인도교’를 기본 장소로 한 해당 작품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정된 작품들을 통해 동일한 시공간 또는 사건을 배경으로 각각의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것 또는 사건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작가들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해당 장소에서 사건을 직접 체험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건을 생생하게 작품에 투영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다양한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해당 작가들은 문학적 측면에서 나름의 업적을 남긴 이들로, 그들이 바라보는 시대상과 사회상을 살펴보는 것은 문학과 역사의 융합에 있어 의미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한 주요 공간인 ‘한강 인도교’가 갖는 장소의 특수성은 물론 문학과 역사의 연계성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까지 확인할 것이다.

II. 시대적 비극의 형상화

루커만은 장소의 개념을 다음 여섯 개로 특정 지었다. “첫째, 장소는 공간적인 범위, 내부와 외부로 가진다. 둘째, 장소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이기에 고유한 양상들을 가지며 이는 모든 장소가 고유한 실체임을 의미한다. 셋째, 장소는 하나의 순환 구조의 일부이다. 넷째, 장소는 국지적이다. 다섯째, 장소는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거나 생성된다. 그래서 독특한 역사적 구성 요소를 지닌다. 여섯째, 장소는 의미를 지닌다. 장소는 인간의 믿음에 의해 규정된다.”⁶ 이처럼 장소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

民)”, 『자음과 모음』20호, 자음과모음. ; 서정주(1982).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 『현대문학』 제28권 6호, 현대문학사.; 서정주(1987).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 『일간스포츠』, 조선일보사, 1987.11.2. (이후 본문 인용시 자세한 출처는 생략하며 편의상 페이지만 기입하도록 한다.)

6. (Lukermann, F.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8(4), 167~172.) Edward, Relph(2005). 『장소와 장소상실』(김덕현 역). 덕형, 28~29.

는데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역사적 구성요소를 지닌다는 것과 인간의 믿음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다는 지점이다.

조지훈은 시 “絶望의 日記”를 통해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을 맞는 한 개인의 비극을 서술한 바 있다. 제시된 사건 이전부터 이후까지 날짜별로 서술된 시는 1인칭 시점으로 내면고백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개인의 비극은 전쟁 상황이라는 극단적인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시대적 비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거대한 비극을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다. 작품의 배경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해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이 발생한 6월 28일에 마무리된다.

文藝 뽕딩 地下室에 / 오마고한 벗들이 하나도 없다. 밤은 열한 時—//
술에 취한 未堂과 木月과 목남과 나와 / 부슬비 나리는 밤거리로 나선다.//
元曉路 終點 아는 집에 누어 / 마즈막 放送을 들으며 눈을 감는다.//

(조지훈, “絶望의 日記”: 62.)

1950년 6월 27일 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최후의 농성을 계획하고 죽음을 맞길 선택한 이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밤의 상황을 담은 내용이다. 언제든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 것이 당연한 시대 상황을 인지한 채 가족과 이별하고 나선 마지막 밤은 빛과 함께이다.

실제 조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글 “나의 역정(歷程)”(『문학론, 1996: 205)에서 당시 상황을 “1950년 6.25동란이 터지자 27일 아침 가족을 결별하고 튀어나와서 거리에 밤늦도록 있다가 서정주, 이한직, 박목월과 함께 원효로 아는 집에서 자는 동안에 인도교가 끊어졌고 적군 탱크가 한강연안에 이른 뒤에 헤엄도 못 치면서 절벽에서 투신하여 뱃전에 매어달려 도강했으며”라고 서술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 또한 이와 일치한다.

무슨 天罰과도 같이 霹靂이 친다/우리의 갈길은 영영 끊어지고 만 것을…….//
漢江 언덕 여기가 서울 最後의 堡壘 그 地點에서/귓구멍을 틀어막고 잠이 든다.
소리없이 느껴우는 소리가 들린다.//

(조지훈, “絶望의 日記”: 63.)

조지훈은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의 폭파 소리를 잠결에 듣게 된다. 실제 사건의 발생 시각은 새벽 2시 30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작가 스스로가 겪은 일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교 폭파 자체를 “天罰”, “霹靂”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사건은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지훈은 일행들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한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 뿐인 철교인 한강인도교가 폭파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귀를 틀어막는 것뿐이었다.

사건과 관련된 각종 기사들⁷에는 인도교가 두 동강이 났으며, 차와 사람 가릴 것 없이 희생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남쪽으로 피난을 가던 서울 시민들 중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도교 폭파와 함께 희생되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엄청났지만 더 큰 문제는 남겨진 사람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피난을 갈 수도 없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⁸ 조지훈 역시 당시의 막막한 심경을 작품에 토로하고 있다.

6월 28일

어디로 가야하나 背水의 거리에서/문득 이마에 땀이 흐른다//
아침밥이 모래같다/국물을 마셔도 冷水를 마셔도/밥알은 영 넘어가질 않는다//
마음이 이렇게도/肉體를 規定하는 힘이 있는가//
麻浦에서 人道教 다시 西水庫 광나루로/몰려나온 사람은 幾十萬이냐//
붉은 깃발과 붉은 노래와 탱크와/그대로 四面楚歌 이 속에 앉아//
넋없이 피우는 담배도 떨어졌는데/나룻배는 다섯 척 바랄 수도 없다//
아 나의 家族과 벗들도 이 속에 있으면만/어디로 가야 하나 背水의 거리에서//

(조지훈. “絶望의 日記”: 63-64.)

7. 『조선일보』. 2010.6.29., “6·25 한강다리 폭파의 희생자들”; 『오마이뉴스』. 2007.6.28., “57년간 한강 떠돈 원혼들을 위로하다”.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은 최근의 것들이다. 전쟁 중이라는 당시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들에 맞닥뜨려 사건 자체는 휴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8. “통신두절 상태, 시민소개 및 피난민 통제대책의 부재, 지휘체계 없이 후퇴하는 국군의 상황, 민간인 보호측면 등 많은 희생을 감수” 등이 ‘한강 인도교 폭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제시되고 있다. (오상택(2012), “6·25전쟁 작전시기별 민군작전 사례 연구”, 『군사연구』 134집, 육군군사연구소, 123쪽.)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사건 당시, 또는 그 이후 상황을 직접 겪은 이들의 증언이 대부분이다.⁹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역시 역사적 사료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학작품은 객관적인 사건의 정황 기록을 넘어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서, 주관적인 시선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¹⁰

조지훈은 사건 이후 자신을 “背水의 거리”에서 갈 곳 잃은 처지로 묘사한다. 땀이 흐르고 입맛도 잃을 정도로 힘든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조지훈 뿐 아니라 같은 처지에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을 “몇 十萬”으로 표현하며 인도교 붕괴에 따른 혼란을 묘사하고 있다. 강을 건너려는 사람의 수에 비해 한참 적은 수의 나룻배 몇 척을 타려고 인파가 몰리며 혼잡이 발생했음은 당연하다.

인도교 폭파 이후도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기록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絶望의 日記”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도하를 위해 강 인근으로 모여들었다는 사실은 작품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다른 점은 이후의 행동과 그에 따른 심리표현에 있다.

마침내 숨어 앓은 絶壁에서/한척의 배를 향해 뛰어내린다//
 해엄도 칠 줄 모르는/이 絶對의 投身!//
 비오던 날은 개고 하늘이 너무 밝아 차라리 悽慘한데/漢江의 저 언덕에서 絶望이
 떠오른다.//
 아 죽음의 한 瞬間 延期—//

(조지훈. “絶望의 日記”: 64-65.)

9. 한 논문에 따르면 “한강교 폭파와 관련하여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미군(UN군 전사) 등의 공간사 기록과 육군 중앙고등군법회의 재판기록, 참전자 증언 및 기타 언론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사료별 작전경과와 피해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차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료들이 당시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오상택, 앞의 글)

10.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문학공간에 대한 공간적 표현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로서의 지역성은 물론,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지역성 파악도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해서 문학공간에 대한 독자의 반향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지역의 재생산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이은숙 (2009). “문학 공간의 인식 체계와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5쪽.)

조지훈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기 위해 지나가는 배를 향해 투신하였다. 그 결과 뱃전에 매달려 겨우 강을 건널 수 있었음을 앞서 언급된 회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투신 과정에서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처참한 행동과 앞으로 다가올 절망이다. 그리고 죽을 목숨이었던 생명이 한시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체감하게 된다.

문학작품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였을 경우 그것이 사실과 온전히 일치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수많은 회고와 증언들 역시 제각기 다른 측면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개인차 역시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사건을 맞닥뜨린 한 인간의 내면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세밀하게 표현해냈다는 데 있다. 당대 지식인들인 작가들을 통해 서술되는 사건에 대한 문학적 기록은 공적정체성을 가진다. 이들을 통해 합의된 형상으로 도출되는 일련의 이미지들이 장소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은 각종 뉴스, 사진 등을 통해 발생날짜 등의 기본적인 사안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사건을 직접 감당해야 했던 동시대 사람들의 내면심리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장소성에 대한 역사적 사건과 문학작품의 연관성은 보다 연계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Ⅲ. 비극의 내적 형상화 방법

서정주는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당시 앞서 논의했던 조지훈과 함께였다. 그들은 밤을 보내며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았고 도강 역시 함께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작가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표현법으로 기술했다는 데 있다. 조지훈이 전쟁의 절망을 개인이 얼마나 체감하게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면, 서정주는 해학적 비유를 들어가며 사건을 표현했다.

보다 특별한 것은 서정주가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 대한 작품을 두 편 남겼으며, 각각의 작품이 표현 방법에 있어 차별성을 보인다는 데 있다. 비극의 내적 형상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담담하게 서술한 경우. 둘째, 해학과 풍자의 정서와 감정으로 전개 및 서술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직설적인 표현이 특징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주제를 응집하기 위한 시적 장치로 분석된다.

해학적인 비유가 눈에 띄는 작품인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과 보다 진지하고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를 각각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일행은 한강 인도교를 건네/한밤중에 모조리 남으로 뺑소
 널 치시고/

행여나 남이 건네올세라/새벽 세 시엔 그 인도교는 뺑 투겨 버리고,

(서정주.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 232.)

우선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부터가 다르다. 조지훈이 “天罰(천벌)과도 같이 霹靂(벽력)이 친다”고 표현했던 인도교 폭파를 서정주는 “뺑 투겨 버리고”라고 표현해내고 있다. 다리 자체가 단번에 두 동강 날 정도로 큰 사건을 해학적으로 표현해낸 것이다. 그 밖의 표현에서도 서정주의 해학적인 표현은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1950년 6월 28일 아침에/조지훈이와 이한직이와 나는/

원효로 4가의 어느 절벽 우에서/저만큼 떠 있는 배들을 바래고/

이판사판 메뚜기처럼 강물로 뛰어내렸는땀쇼./허허이! 뭐니 뭐니 해두/

이런 때에 쓸 만한 건 그래두 그 용기라는 것이드라구./

하여간에 요로코롬 하구서야 겨우/그 배라는 것도 하나 잡아타긴 타고./

남으로의 뺑소니 대에 한몫 끼일 수나마 있었으니깐드루!/

아무렴, 이 아침의 이 다이빙이야말로/정말루 하모니는 하모니였지!

(서정주.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 232.)

목숨을 걸고 지나가던 나룻배로 뛰어내린 상황을 서정주는 거리낌 없이 “메뚜기처럼”, “아침의 다이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급박한 상황에 비해 표현법은 발랄한데 이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비틀어 표현한 것이다. 또한 강을 건너 떠나는 상황 자체를 “뺑소니”라고 표현함은 물론 이어 자신들의 행동을 “용기”있는 “하모니”였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정주는 해학적인 표현들을 통해 사건의 비참함과 상황의 다급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의지로 해결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겨

내리는 심적 초월의 표현이자 언어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고 생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상황의 급박함을 묘사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주의 이 작품은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글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수한 시대성과 상황을 인지한 채 접한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서정주는 실제 전쟁을 겪은 뒤 정신착란 등의 정신병을 앓게 되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자살시도를 했을 정도로 전쟁의 상흔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작품 자체를 그저 밝은 시 한 편으로 치부하기에는 작가가 겪은 민족의 비극과 전쟁의 아픔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학작품의 숨겨진 이면에 자리한 역사적 사건의 이해는 그러기에 두 분야의 연계 연구가 필요함을 뜻한다.

서정주는 ‘한강 인도교’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한 편의 시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룬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반된 분위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6월 28일 아침에는 서울을 강점해 쳐들어오니/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꿈속에만 잠겨 있던 서울 주민들은/
이 뜻밖의 폭거 앞에 당황하여/
남으로 도망갈 길만을 찾아/한강가로 한강가로만 몰려들었다./
그러나 남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인도교는/이미 6월 28일 첫새벽에/
최모 대령이란 사람의 손에 폭파되어 버린 뒤였으니/
이게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딱이는 모르지만/
미련하기는 매우 미련한 노릇임엔 틀림없었다./
미련한 곰같이 미련한 노릇임엔 틀림없었다.

(서정주.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 9.)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 대해 서정주는 “미련한 곰같이 미련한 노릇”이라고 일축했다. 현재도 꼭 폭파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며, 사건과 관련한 재판¹¹⁾이 오랜 기간 이어지기도 했다. 서정주의 시선은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11. 2013년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일은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정치와는 무관한 가장 대중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인도교 폭파’는 남침을 위한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그만큼 한강은 교통의 요지로 기능했다. 하지만 인도교가 끊어지면서 남침을 차단함은 물론 남으로의 피난길 역시 막혀버린 셈이 되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남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한강가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되도록 빨리 한강을 남으로 건너가야 산다/
어떻게라도 해서 타고 갈 배를 붙잡아 보자”는 계/
우리 세 사람 시우들의 일치한 의견이어서/
과부살이를 하고 있는 내 처이모님에게 그걸 말하고/
내 처자의 한동안의 보호를 부탁했더니/
김밥 한 보재기를 만들어 싸 주시어서/
그걸 들고 우리 서이는 강가 언덕으로 나갔다//
그러는 강가는 동에서 서까지/눈에 보이는 한 ‘개미 장 서듯’한 인산인해이고/
배들은 모조리 너무나 많은 우리 피난객들의 무더기 급습을 피해/
저만큼 멀찌감치서 도사리고만 있어/성질이 급한 현병은/
“안 오면 쏘아 죽인다”고 공포空砲도 쏘았으나/
막무가내의 침묵만이 그 답변이었다./
마포까지 왔다는 인민군 탱크가 언제 이리루 몰려올지 모르는 터에/
이건 정말로 그 위기일발이었다//

(서정주.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 9.)

한강가에 몰려든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잡아탔다거나, 헤엄을 쳤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남겨진 녹취나 회고록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서정주의 기록이 가지는 차이는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을 피해 멀찍이 떨어져 있던 배들과 현병의 공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혹여나 남으로 건너가지 못할까,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었을 터다. 그 사실을 서정주는 작품을

사건은 현재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 폭파를 실행한 대령 최창식은 1950년 9월에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후 총살형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아 복권되기도 했다. (『서울경제』, 2013.5.14. “법원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앞서 언급된 도강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과 행동을 다루고 있음에도 일정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 나는 있는 대로 지혜를 다 짜내서/비교적 낮은 언덕에 비교적 가까이 떠 있는/
배만을 눈여겨 찾아 헤매다가/마침내 그것 하나를 찾아내고는/
“이판사판이다! 뛰어내리자!/어렸을 때 치던 개구리헤엄이야 칠 수 있겠지./
한 20미터쯤만 허부적거려 가도 저 배는/잡을 수 있겠다!”고/
큰 소리로 두 친구를 보고 고함을 쳤다.//
그리하여 나는 수영 선수들의 다이빙 흉내를 내서/
두 팔을 주욱 내리뻗치며 강물에 뛰어들어/
그 배를 향해 허부적, 허부적 개구리헤엄을 쳐 갔는데/
그렇지, 천우신조라는 건 역시나 있어/
간신히 그 배의 뱃전을 두 손으로 붙들어 잡을 수는 있었다./그러면서 옆을 보니/
조지훈이도, 이한직이도 이어서 그 뱃전에 매달리고 있었다./
뒤로 언덕 쪽을 잠시 돌아다보니/
만 사람들도 여럿이 우리의 뒤를 이어/메뚜기 뛰듯 뛰어나리고들 있었다./
이판사판이면 용기도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법이다.//

(서정주.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 9.)

이 작품이 앞서 언급된 작품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모든 행동과 시선에 있어 좀 더 상세한 기술이 이어졌다는데 있다. 단순히 배에 뛰어들어 도강에 성공했다는 것이 아닌 뛰어내릴 배를 찾는 과정, 간단히 배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구리헤엄을 치고 나서야 배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부분 등은 앞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상황의 다급함과 생명을 건 헤엄을 통해 겨우 얻어낸 삶은 하늘의 도움, 용기에 의한 것으로 그만큼 어려운 일을 성공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뒤이어 자신들을 따라 메뚜기 뛰듯 뛰어내리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통해 강을 건너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서정주는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작품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에 나타난 해학적인 표현들은 오히려 비극

적인 현실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에는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도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 인도교에 부여된 기존의 이미지는 인도교 폭파사건 이후 새롭게 변화하였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충격과 고통의 장소로 변화하여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건을 겪은 이들을 통해 발생한 새로운 이미지는 역사를 구성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사적 기술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학작품을 통한 이미지의 복원은 장소성을 특정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V. 비극적 사건 이후의 형상화

김원일은 소설 “난민(難民)”을 통해 전쟁 이후 난민 신세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전쟁 중에도 제각기 터전에서 버텨가며 살아남기 위해 애쓴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 역시 결국은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이유까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조지훈의 “絶望의 日記”의 경우, 지극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고백형 서술이라면 김원일의 “난민”은 개인을 기본으로 한 한 가족, 마을의 범주까지 서술의 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의 정치, 사회적 체계와 사건 이후의 대책 등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¹²

12. 문학지리학의 경우 문학작품의 주관적 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화를 반영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 연구법을 반영하여 역사와의 관계를 확인코자 하였다. “첫째, 특정한 환경과 경관, 그리고 도시에 대한 체험이나 이미지를 문학작품을 통해 밝힌다. 둘째, 동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집단이 같은 장소에 대해서 상충되는 이미지를 동시에 갖는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 셋째, 동일한 장소에 대한 상이한 이미지를 밝히는 것이다. 넷째, 같은 장소에 대해 시기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되는 경우를 밝히는 것이다. 다섯째, 문학작품을 통하여 장소가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Shortridge, James R., (1991), *The Concept of the Place-Defining Novel in American Popular, Professional Geographer*, Vol. 43, No.3, 280~291.)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문학역사지리』 제4호, 한국문학역사지리학회, 159~162쪽.)

한강 독에 도착하자 강 건너 영등포 너머 쪽에서 작열하는 포소리와 총소리가 강
이쪽까지 한층 가깝게 들렸다. 영등포 너머 그쪽 어디에서 전투가 한창임을 알 수
있었다. 부천 쪽이 틀림없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 말에 달아, 인명재천이니 운은 하
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눈 아래로 보이는 한강 인도교는 인민군이 서울로 들어
오기 직전 6월 28일 새벽 두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폭파된 뒤, 여태 복구
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원일. “난민(難民)”: 372.)

“난민”의 주요 배경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이다. 때문에 한강을 경계로 벌어지던 치
열한 전투의 여파를 견뎌야 하는 무고한 시민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포탄
이 난무하는 공간에서 살아가며 생명 역시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작품 속에는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언급은 따로 등장하지 않
는다. 하지만 사건 이후의 변화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폭파된 이후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인도교의 모습 역시 찾아볼 수 있다. 한강 인도교는 폭파 사건 이후 임시로
부교를 설치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이 이어 서술된다.

한강 인도교 밑은 통나무를 줄줄이 엮은 깔판으로 임시로 부교를 만들어두고 있었
다. 그래서 포대, 전차, 자동차까지 건널 수 있었고 각종 무기와 병참을 실어날랐
다. 그런데 그 부교로 사람들이 하얗게 깔려 줄지어 건너고 있었다. 서울 사대문 안
에서 동원된 시민들이었다. 부교를 경비하던 인민군들이 가축 몰듯 서울역 광장에
서 온 사람들을 독 아래로 몰아붙였다. 그들은 소대별로 줄을 서서 부교를 건너기
시작했다. 위기를 맞으면 무엇이든 판단할 능력을 잃어 멍청이가 된다는 말대로,
사람들은 온순한 가축들처럼 명령에 따랐다.(...) (김원일. “난민(難民)”:372.)

한강 인도교는 1958년에 현재의 한강대교로 복구되었다. 그 전까지는 임시로 설치
된 부교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부교의 설치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이 설치한 것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1950년 이후 한강 인도교는 임시 부교가 설치되
면서 전쟁무기를 나르는 통로이자, 피난민들이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사실 당시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부교를 건너는 피난민들의 사진이 남아있다.
관련 사진¹³과 “난민”의 서술을 비교해보면 부교의 생김새는 물론 당시 피난을 떠나
던 사람들의 행색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림 1] 폭파된 한강인도교



[그림 2] 한강부교



한강 부교는 온전한 형태의 한강대교가 완성되기 전,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인 인도교 폭파로 인해 고립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붓짐을 이고 길을 나섰고 그 행렬은 한참동안 이어졌다. 피난을 떠나는 이들은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노역에 동원되었는데 그 형태는 이 작품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19일 새벽, 먼동이 뿌옇게 트여오자 시민군에게도 후퇴 명령이 떨어졌다. 노량진 인민학교에 머물던 서른여 명의 취사반 아녀자들이 한강에 걸쳐진 부교를 먼저 건넜다. 시민군의 취사 조직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는지 아녀자들에게 귀가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이어, 시민군이 부교를 거쳐 용산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들은 도강하자마자 큰길의 오백 미터마다 모래 부대로 바리케이드를 쌓는 공역에 재동원되었다. 한편, 인왕산에서 동남쪽으로 아현고개에 이르기까지 능선마다 토치카를 촘촘히 구축하고, 아현고개 큰길을 막아 바리케이드 쌓아 최후의 결전에 대비했다. 서울 서부 방벽만 아니었다. 서울 북방에 벽을 친 북한산 능선을 빼고는 한강을 바라보는 요소마다 시민들이 방어선 요새 축조에 불철주야 동원되고 있었다. 방공호에서 밤중에 이불 둘러쓰고 주파수 맞춘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듣는 자가 있어 그들의 말을 통해 서울 방어 공역에 나선 시민들은 낙동강전선과 서울전선의 전황을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김원일. “난민(難民)”: 375.)

13. 폭파된 이후의 한강인도교 사진은 관련 기사에 포함된 것이다. (『한국일보』. 2016.6.28., “한강 인도교 폭파”)/ 한강 부교에 관한 사진은 한겨레에 남아있는 자료로, ‘한강 인도교 폭파 사진’과 큰 관련이 없는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 기사에서는 사진을 통해 전쟁의 처참한 모습을 전하고자 하였다. (『한겨레』. 2014.5.25., “세월호의 악마들, 대한민국의 악마들...”.)

남아있는 이들은 어린아이나 몸이 불편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방공호에 숨어 노역을 피하려 노력하기도 하고 갖은 핑계를 대보기도 하지만 발각될 시 그에 따른 처벌이 이어졌다. “배고픔도 잊은 채 모두 땀에 흠뻑 젖어 정신없이 작업에 휘둘렸다. 내무서원들이 땀뺀이를 돌며 시민군의 울력을 감독했는데,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p.373)거나 억지로 총을 들게 하고 참전시키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함께 노역을 하기도 하고, 식사준비를 위해 차출되기도 하였다. 남자들은 시민군이라는 명목 하에 밤낮없이 동원되었다. 지속되는 전쟁은 일반인들의 삶마저 황폐하게 만들었고 노역에 나가야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돼서야 피난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장소성은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이 때 동시대 사람들에게 형성된 이미지 또는 정체성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특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C.W. 밀즈는 장소에 부여되는 정체성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공적정체성과 대중적 정체성이 그것이다. “공적정체성은 특정 사회의 다양한 지식공동체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다른 증명 가능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 것들로 구성된다. 대중적정체성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어지며 대중매체를 통해 살포된다는 특징을 가진다.”¹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들의 경우에는 공적정체성의 특징을 가진다.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은 지식인을 대변하기도 하며, 이들이 공유하는 공적정체성은 합의된 장소 이미지를 대변한다. 장소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 기록은 이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때 문학작품을 통해 형성된 공적정체성 또는 장소성이 해당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 이후 부교가 설치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과 전쟁에 시달리다 도망치듯 난민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김원일의 “난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포탄이 난무하는 공간 속에서도 남겨진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했고 살기 위한 끈을 놓지 않았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들만이 확인될 뿐 주변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 힘겨움 등에 대해선 상세히

14. Mills, C. W.(1956). *The Power Elite*, 298~324.: Edward, Relph., 앞의 책, 133쪽.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공간을 한정해 누군가의 삶을 그려내는 문학의 경우, 오히려 사건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음을 “난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여러 문학작품의 연계연구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을 배경으로 한 네 편의 문학작품 조지훈의 시 “絶望의 日記”, 김원일의 소설 “난민”, 서정주의 시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일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작품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이 된 작품들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 방법 등에서 주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지훈의 작품 “絶望의 日記”에서는 사건의 비극성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한 인간의 절망적인 심경이 드러나 있는데 이를 통해 작중 화자는 물론 동시대, 동일한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대적 비극과 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

서정주의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에서는 해학적인 표현들로 인해 시대의 비극성을 보다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에서는 사건 이후 알 수 없었던 여러 정황들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김원일의 “난민”에서는 사건 이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반인들의 억압받는 삶과 결국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주요 공간의 이후 모습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대상이 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은 일반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대의 비극과 정황 등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의 경우 명확한 역사적 기록보다는 녹취, 정황, 회고 등을 통해 조합된 기록을 바탕으로 뒤늦게 사건의 본질에 대해 확인한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치, 사회적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건을 직접 겪은 작가들이 남긴 문학적 기록 역시 사료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특정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 작품들의 연계연구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작품들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일반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충격을 내밀한 기록으로 전했음은 물론 사건 이후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알려지지 않은 비극적 삶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여러 문학작품을 연계해 살펴보는 것은 동시대를 살며 역사적 사건을 겪었던 일반인들의 삶을 반추하는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건과 희생자들에 가려져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초래된 다양한 영향들에 대한 기록은 관련사건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정된 문학작품을 통해 역사적 공간인 ‘한강 인도교’라는 특수한 장소에 얽힌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에 대한 조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문학작품을 활용한다면 사건 이후에 발생한 공간의 쓰임과 또 다른 사건으로의 확대까지도 가능해진다.

셋째, 기존의 장소성 연구는 특정 문학작품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 작가 등에 대한 복합적 연계 연구는 각 분야의 연구 확장은 물론 의미 확장까지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은 전쟁 중 발생한 비극적 역사의 기록이기 이전에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동시대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는 문학작품에 남겨진 인물들의 내면은 물론 생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일반인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론이다. 본고에 제시된 ‘한강 인도교’ 뿐 아니라 또 다른 공간,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확대는 역사와 문학의 융합이라는 영역 확장 및 이후 이어질 공간성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주요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을 연구한 것으로, 문학과 역사라는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장소성 연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한 시대상 조명이 문학작품을 통해 가능함은 물론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두 영역이 융합하여 역사, 문학은 물론 장소성 연구에까지 확대된

다면 각 영역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 발전시킬 수 있음은 물론 각각 상호보완적인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문학작품과 역사적 사건을 연관지어 진행되는 장소성 연구는 특정 장소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성, 부여되는 독특한 의미 자체가 해당 시대, 사건, 문학작품을 아우르는 상징으로 창출됨을 의미한다. 이를 발전시킨다면 역사적 특수성은 물론 제재로 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특정 작품에서 벗어난 장소적 상징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의 확장 및 의미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원일(2009). “난민(難民)”. 『자음과 모음』20호, 자음과모음.
- 서정주(1982). “1950년 6월 28일 아침 한강의 다이빙”. 『현대문학』제28권 6호, 현대문학사.
- _____(1987). “6·25 민족상잔의 때를 만나서”. 『일간스포츠』, 조선일보사.
- 조지훈(1959). “絶望(절망)의 日記(일기)”. 『歷史 앞에서』, 新丘文化社.
- 유종호(1991).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조지훈(1996). “나의 역정(歷程)”. 『문학론』. 나남출판, 190.
- Edward, Relph.(2005). 『장소와 장소상실』(김덕현 외 역). 덕형, 28~29.
- Mills, C. W.(1956). The Power Elite. pp.298~324.
- 김미나(2016). “이문구 작품 속 한강의 공간성 연구”.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20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 오상택(2012). “6·25전쟁 작전시기별 민군작전 사례 연구”. 『군사연구』134집, 육군군사연구소.
- 이은숙(2009). “문학 공간의 인식 체계와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제3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5.
- _____(1992). “문학지리학 서설”. 『문학역사지리』 제4호, 한국문학역사지리학회, 1992.
- Lukermann, F.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8(4), 167~172.
- Shortridge, James R.(1991). *The Concept of the Place-Defining Novel in American Popular*. Professional Geographer, Vol. 43, No.3.
- 『서울경제』. 2013.5.14., “법원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 『조선일보』. 2010.6.29., “6·25 한강다리 폭파의 희생자들”.
- 『오마이뉴스』. 2007.6.28., “57년간 한강 떠돈 원혼들을 위로하다”.

『한국일보』. 2016.6.28., “한강 인도교 폭파”.

『한겨레』. 2014.5.25., “세월호의 악마들, 대한민국의 악마들...”.

■ Abstract ■

A Study on The Placeness of Appeared in Literature

- Focused on ‘Hangang Bridge’ In 1950s -

MI-NA KIM***

Researches on space described in literature have lasted for a long time. Related studies have variously dealt with the definition of space and place as well as literary and emotional specialty which a certain space bears and further the methods and the examples for making it contents. These studies are developed for building many literary houses, festivals, project villages, and so on, and can become discovered easily. Nevertheless, there are many subjects that have not been studied yet about studies on spatiality.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veral literary pieces by some writer which has the same time and space setting. There are various literary works with a specific historical event as their setting, ‘Hangang Bridge’ is selected as a significant space to study literary works,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o choose historically meaningful space and event as a subject of research is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Also, because broken bridge didn’t allow people to move forward south, various additional damages occurred.

Keywords: the Han River, Literature, History, Placeness, Hangang Bridge bobming

■ 논문투고 : 2016년 8월 30일 논문심사 : 2016년 9월 9일-9월 28일 게재확정 : 2016년 10월 13일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고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향후 중복게재 또는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원고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DANKOOK UNIVERSITY